

PET의 열분해 안정화에 대한 연구

이춘근, 한상희, 홍성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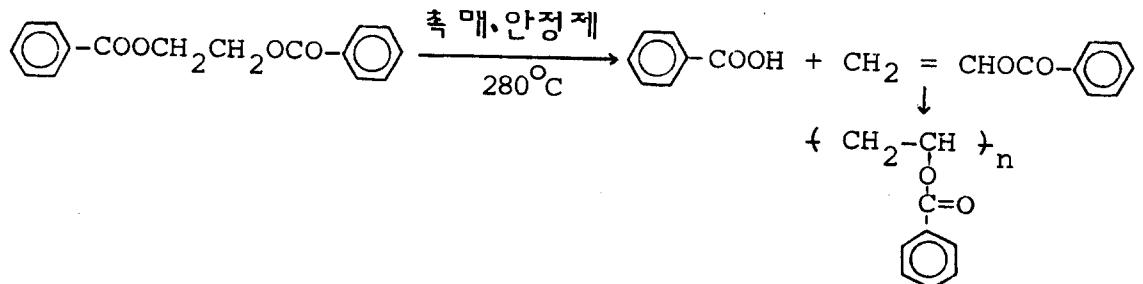
서울 대학교 공과대학 섬유공학과

현재 생산되고 있는 PET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속 중합 기술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¹⁾

본 연구는 고속 중합촉매인 Titanium 계를 사용할 때 문제시되는 PET의 열분해와 치적 현상을 규명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PET의 model 학합물로 ethylene glycol dibenzoate를 사용하였고 여기에 Ti-tetrabutoxide 3.4×10^{-4} mol Ti/mol EGD 약 0.025, 0.05, 0.1, 0.15, 0.2 wt%의 각종 안정제를 투입하고 280°C에서 1, 2, 3, 4 시간 동안 가열하여 각 분해물의 열분해 정도를 측정하였다.²⁾

GC를 이용하여 분해 생성물을 확인하고 생성되는 benzoic acid를 정량하여 분해정도의 척도로 삼았다.³⁾



Colorimeter 를 이용하여 각 분해물의 L. a. b값을 측정하고 이것을 benzoic acid 양과 비교하였다. 사용한 안정제는 TPP, TMP, TEP, Irganox (1010, 1076, 245, 259, 1330, 1222, B 900), Irgafos TNPP 이다.

참고 문헌

1. H. Zimmermann and P. Lohmann, Acta Polymerica, 31, 686 (1980)
2. K. Tomita, Polymer, 18, 295 (1977)
3. W. Berger and E. Tucek, Faserforschung und Textiltechnik, 24, 317 (1973)